

“주여, 나를 받으소서”

-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명상

마침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그 날 예루살렘에서 욕십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 동안의) 모든 사건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 친히 다가오시어 그들과 동행하시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 받는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멈추어 섰다.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일입니까?” 하시자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의 일입니다.그런데 웬일인지 우리 대제관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달아) 처형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의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더 멀리 가시려는 척 하자 그들이 말리며 “이미 날도 저물어 저녁이 되었으니 우리와 함께 머물러시다” 하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머물려고 들어가셨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탁에) 자리잡으시자 빵을 드시고 찬양하신

다음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리어 예수
알아보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다. 이에 그들
은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해 주셨을
때에 [우리 안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하였다.

(루가 24,1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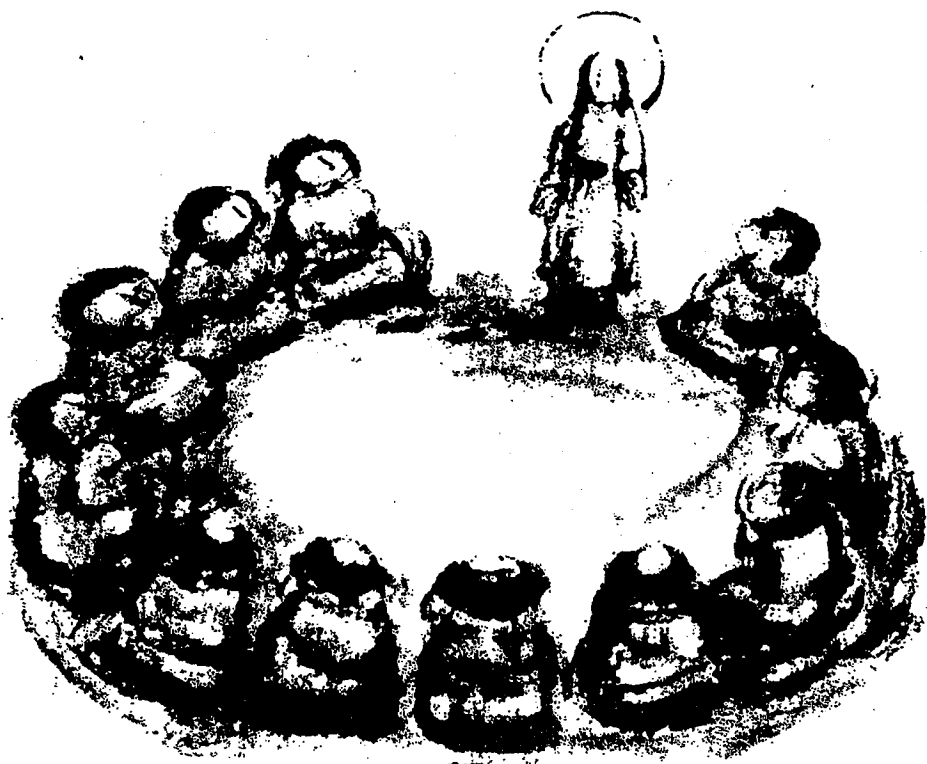
함께 걸어온 길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함께 걸어왔다. 실망에 잠겨 고향으로 도망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다가오셨다. 하지만 성서에서는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루가 24,16)고 한다. 설사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이렇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함께 걸어 주신다. 삶의 자질구레한 경험들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여러 모험 속에 당신 친히 다가오시어 그 길을 함께 걸어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내 삶의 시초부터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어 함께 대화하시며, 하느님의 비밀에 담긴 나의 비밀을 들려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삶의 모험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 주시며 우리 안에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우리를 매혹적으로 사로잡으신다. 우리 삶의 어둠, 실패, 절망의 구렁 속에 임하셔서 당신 친히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구해 주시며, 죄스러움에 짓눌린 부끄러운 마음 속에 용서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희망과 빛으로 벅차도록 가득 채워 주신다. 그리곤 우리를 다시 삶의 사막 한복판으로 이끄시어 그곳에서 사랑의 혁명을 이룩하신다. 우리 삶의 한복판 그 사막에서 오히려 친근하게 당신을 드러내시며, 우리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을 희망에 가득 찬 모습으로 변화시키신다. 우

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다
람쥐 쳇바퀴 돌 듯 맹송맹송 그저 그렇게 반복되는 삶을 새
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성찰하도록 우리를 촉구하신다. 그
곳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삶은 생기와 의
미로 가득 찬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도전이다. 이러한 도전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화시키시
고 걸러내시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도록 이끌어 주
신다.

주님께서는 인생의 여러 모험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
며 기쁨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 제자들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해 주셨을 때에 [우리 안에서] 마음
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24,32) 했다. 실망과 좌절에 빠



저 고향으로 도망가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느덧 감동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감동의 요소들과 더불어 우리 안에 머무신다. 내가 지극히 화가 나고 분노에 차 있을 때, 그 옆에서 그 분노를 묵묵히 받아 주면서 가라앉도록 애를 쓰며 함께 해주는 이들 안에서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머물러 주신다. 주님께서는 삶의 구체적 경험들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좌절이 깃들 때 그 좌절과 실망을 어느덧 기쁨으로 위로로 희망으로 감동으로 바꾸어 주신다.

우리가 사랑하고 따르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러한 분이시다. 그분의 삶에서 사랑의 극치를 본다. 성서는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탁에 자리잡으시자 빵을 드시고 찬양하신 다음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리어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다”(24,30-31)고 한다. 제자들이 쪼개어지는 빵을 보고 비로소 그분을 알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쪼개어져 나누어지는 행위 안에 주님께서는 머무신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쪼개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분이시다. 그 쪼개어 나누는 행위, 온전히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으시는 행위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도 그렇게 쪼개어 나누는 행위에 “예” 하도록 초대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쪼개어지심을 통해 우리 자신 안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며 구원을 심어 주시는 분이시다.

아!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늘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 “아!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 주시는 당신의 사랑에 감동되어 아낌없이 내 한 목숨 바쳐 기꺼이 당신을 따르고 섬기고자 하나이다.”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현장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발생한다.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용서는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무한한 사랑의 가능성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부르심이란 바로 용서받는 죄인의 마음에 싹트는 새로운 결심이기도 하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어우르는 공동체가 사랑과 나눔 그리고 희망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다시 숨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을 새롭게 발견하고 관상하고 섬기도록 초대받고 있는 것이다. 오직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는 마음만이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이끈다.

하느님 사랑에 대한 감사

성 이냐시오 로욜라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위해 그분은 사랑에

관한 다음의 두 가지 점을 상기시킨다. “첫째, 사랑은 말보다 행동에 있어야 한다. 둘째, 사랑이란 서로 무엇을 주고 받는 데 있는 것이니, 즉 사랑하는 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사랑받는 이에게 선사하고 또 가질 수 있는 물건도 알려 주며, 사랑받는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다”(『영신수련』 230-231).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말로써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로써 주님께 무엇을 선물로 드릴 수 있겠는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푸신 모든 은혜를 마음에서 하나하나 돌이켜 깊이 감사드리며, 그분께 마땅히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고 깊이 숙고해 볼 때 우리 마음 속에 하느님께 대한 감사로움의 사랑이 일어난다. 내가 받은 은혜, 창조와 구원의 은혜 및 특별히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 당신의 삶 속에 불러 주신 현존과 소명의 은혜, 당신의 꿈 속에 나를 담아 주신 은혜, 이 모두를 하나 하나 돌이키며 그분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마음 속에 떠오르는 응답과 결심을 다음의 기도에 담아 바칠 수 있으리라.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억력과 지력과 모든 의지와

내게 있는 것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소서.

당신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나이다.

이 보잘것 없는 책을 통해서 나눈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 그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비록 보잘 것 없는 작은 모습이었습시다만, 제가 교회의 전통과 예수회의 전통 속에서 배우고 이해하고 습득한 것들을 나누려 했던 노력이었습니다. 학문으로서의 그리스도교 진리가 아니라 삶으로서의 신앙을 나누려 했던 작은 발버둥 안에는 삶의 여러 상황에서 겪는 다양한 체험들을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의 역동성이라는 맥락에서 통일을 이루는 하나의 전체로 구성해 보려 애쓴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했던 보물입니다. 바로 저 자신의 고민과 갈등을 담아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 발버둥은 과거의 사건으로서의 성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신비, 즉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 우리의 삶에 매순간 현존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신비를 나누려 했던 조그마한 사랑의 노력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여정에 사랑을 담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서구절 찾아보기

창세기		시편	
1,1	91	8	20
1,1-2	107	18,1-2	154
1,2	34, 45	35	233
2,7	184	35,10	225
2,16-17	68	38	71, 74
3,1-8	65	51	84
3,1-14	73	55	233
3,15	87	91	41
3,19	184	95,1-3.6-8	22, 30
출애굽기		121	32, 41
3,1-2	131	124,2-5	46, 51
23,20	124	126	53, 63
23,20-33	125	130,1	80
40,34-38	108	139,1-18	42, 49, 50, 51
신명기		145	41
18,13	124	149	41
26,5-9	264	이사야	
열왕기 상		1,18	76
19,8-9	132	7,10-15	93
욥기		11,1-9	94
6,15	58	40,1-31	124, 125
38,2-4	47	43,1-4	11

43,1-17	20	요엘	
44,22	76	2,12-17	84
49,1-16	49, 50, 51	말라기	
54,52,13-53,12	245	3,1-5	109, 124, 125
53,2-5	243	지혜서	
53,10	244	18,14-16	107, 114
54,4-10	255	집회서	
55,1-13	20	16,24-17,32	41
64,7	48	마태오 복음	
65,17	66, 77, 143	1,8-24	94
예레미야		2,1-12	115
1,4-10	20	4,1-11	127, 136, 226
31,31-34	51, 76	4,23	181
31,33	49	5,1-12	151-152, 157, 160
에제키엘		5,8	69
16,1-63	73	7,7-8,12	158, 159
16,35	71	10,1-20	171
31,34	76	10,7-8	166
34,11-16	50, 51	13,1-23	30
36,25-27	77, 81, 84	14,22-33	171, 181
37,14	143	15,32	180
다니엘		16,13-20	193, 196, 197, 202
9,24	110	17,1-13	202
호세아		21,1-11	202
2,16-25	125	22,37-40	208
6,1-3,6	20, 75, 78, 84	23,1-19	182
11,1-11	74	26,6-16	202

26,9	199	5,1-3	141
26,17-30	223	5,1-11	149
26,31-46	228, 233	5,4-8	142
28,1-10	247, 250, 255	5,31-32	180
28,20	143, 168, 175	6,17-38	149, 172
마르코 복음		6,20	145
1,1	120	7,1-10	182
1,1-5.9-11	116, 123, 125	7,36-50	192
1,12-13	130	7,47	191
1,14-15	77, 121, 166	8,1-3	187
2,23-28	182	9,28-36	201, 202
5,21-43	192	10,30-37	36
8,31-33	137	10,38-42	168, 172, 192
10,46-52	171, 179	11,27-28	185, 192
12,28-34	212	12,48	83
루가 복음		19,5	142
1,1-2	118	19,38	111
1,5-25	94	15,11-32	84
1,26-45	94	22,7-38	223
1,30-33	185	22,32	231
1,35	34, 91, 108	22,33	218
2,1-7	109, 111, 114	22,39-46	224, 233
2,8-20	115	22,42	227
2,12.14	111, 113	22,44	226
2,29-32	110	22,47-53	233
4,14-30	136, 162, 171	22,61-62	231
4,18-19	129, 195	24,16	259

24,13-35	36, 255, 257-258	14,6	72, 198
24,30-32	222, 252, 260, 261	15,1-13	63, 100
24,36-49	224, 264	15,9-17	203, 206, 211, 212
요한 복음		16,20-24	85, 86, 93, 184, 216, 248
1,1-14	26, 31, 57, 175	17,1-26	221, 222
1,1-18	95-96, 101, 104	17,3	200, 221
1,29	76	17,20-26	63, 214
1,35-51	149	19,17-30	235-236
1,36.39	141	20,19-23	256
2,1-11	173, 176, 181	21,1-22	83, 182, 253, 254, 256
3,16-18	51, 164, 239	21,15-17	84
4,4-42	192	사도행전	
4,14	180	10,37-43	125
6,1-15	182	12,9	56
6,21	201	로마서	
6,66-69	196	1,3-4	196
8,2-11	183, 188, 191	1,18-32	73, 99
8,32	23	5,6-11	245
8,44	72	5,15-21	135, 136
10,7-21	155, 156, 160	7,13-25	74
11,1-44	202	7,14	71
12,23-33	231, 233	8,18-39	264
12,27	227	8,28-39	63
13,1-17	223, 240	10,8-17	31
13,14-15	218	13,8-10	210, 212
13,21-25	220		
14,1-15	20		

14,17	28	디모테오 후서	
15,7-13	264	3,14-17	31
고린토 전서		디도서	
11,17-34	223	2,11-14	104
13,1-13	212	3,4-7	104
13,7	185	히브리서	
13,13	212	1,1-9	104
15,20-28	256	4,12	27
고린토 후서		4,14-5,10	137
4,7	48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1,12-15	137
1,4	102	베드로 전서	
4,6-7	264	2,1-3,17	149
에페소서		4,7-11	264
1,3-14	41	요한 일서	
2,1-10	63	1,1-4	26, 115
3,14-19	103, 104	2,7-10	212
필립비서		2,15-17	136
1,9-11	138, 143, 149	3,1-2	63
2,1-18	160	3,11-23	212
2,5-11	106, 108, 115, 237	4,7-8	210, 212
3,7-21	149	요한 묵시록	
3,8	143	21,5	50
골로사이서		22,20	114
1,24-29	104		
데살로니카 후서			
2,13-17	31		

내 삶의 모함인 하나님

초판발행 : 1999년 6월 27일

지은이 : 심종혁

펴낸이 : 김숙자

펴낸곳 : 성서와함께

156-070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177-8

(02) 822-0125~7 FAX (02) 822-0128

등록번호 : 14-44(1987년 11월 25일)

지로번호 : 3004896

찍은곳 : 분도인쇄소

가격은 표지에 있습니다

ISBN 89-7635-088-X 93230

© 1999 심종혁